

#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칼끝 겨누기 앞서 133만명 전수조사

모든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이 내년 3월 출범한다.

생계가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꼼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일반 시민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 133만명에 달하는 모든 체납자를 방문하고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 등 경제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액 축소 성과를 거둔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체납관리단은 취업준비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일할 능력이 있는 은퇴자들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3년간 조직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3년간 총 2000명 수준의 공공일자리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전수 실태 파악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 등으로 유형을 분

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산·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연계 등 경제 활동 재기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세금을 체납 중이지만 납부 의지가 있고 경제활동을 통해 완납이 가능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와 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유도한다.

하지만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타인명으로 이전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고발, 추적조사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직후 '체납관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법령개정·예산확보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3월부터는 신규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통해 체납자 실태 확인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렇게 국세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이유는 국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2021년 99조9000억원→2024년 110조7000억원)하고 있고, 납부 기피자들의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체납한 A씨는 고의적 납부 기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가택 수색과 추적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간이 창고에 가짜 주소를 두고, 사실상 관계에 있는 B씨의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위장했다.

하지만 A씨는 본인 소유 고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고 롤스로이스, 벤츠 등 고급 자동차 5대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전 처와 동거인 명의로 허위 저당권 수실탁원을 설정해 해당 아파트가 처분 실패가 없는 것으로 위장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렇게 회화 생활을 하면서

납세 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대해 소송 제기, 아파트 공매 처분 등을 통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체납관리단 실태 확인원이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면 국세 공무원은 과세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추적조사 대상을 분류하고 수색 등 강제 징수를 실시하게 된다.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확인 자료는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체납자 유형 분류를 정교화하는데 사용된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일할 능력이 있는 은퇴자 등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해 전국적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태 확인을 통해 추적조사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선정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엄단해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징수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국세청은 이렇게 회화 생활을 하면서



## 광양경제자청, 중국지역 투자유치 활동 전개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 참석 및 유망기업 투자상담 추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제자청)은 9월 4일부터 12일까지 중국 광저우(廣州), 샤먼(廈門), 장춘(長春) 지역을 방문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 활동기간에 광저우시에 소재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위정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시범구와 업무협력 관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충곤 광양경제자청장은 "이번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중국 최대의 국제 투자상담회에 참석하여 유망 글로벌 기업을 발굴하고, 광양만권내 신규 및 증설투자 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과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 전남도, 공동육아나눔터 지방활성화 사업 전국 최다

광양·보성·강진·완도 5개소... 맞벌이 가정 등 양육부담 덜어

전라남도는 여성가족부의 '2026년 공동육아나눔터 지방 활성화 사업' 공모에 광양시, 보성군, 강진군, 완도군이 신청한 총 5개소가 모두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 지역 돌봄 기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 지방 활성화 사업은 야간시간 운영 확대와 돌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맞벌이·돌봄 공백 가정을 돕는 사업이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개소마다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매칭된다.

공모에서 선정된 공동육아나눔터는 ▲광양시 꿈빛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보성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 ▲강진군 공

동육아나눔터 1·2호 ▲완도군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1호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 실현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시군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거점으로,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부모가 안심하는 환경을 만드는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공동육아나눔터의 역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 광주시, 대구식품산업전시회 '달빛동맹관' 운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동안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열리는 '2025 대구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해 '달빛동맹관'을 운영한다.

'달빛동맹관'은 2013년부터 이어온 광주-대구 간 식품산업 교류 협력의 상징으로, 두 도시가 실질적인 협력과 상생 기반을 다지는 전시 공간이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대표 식품기업 12

개사가 참여해 전통식품부터 최신 트렌드 제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주요 전시품목은 ▲무등산 수박 등 지역 농산물 ▲전통주 ▲김치 ▲장류 ▲잡쌀김부각 ▲제과·제빵류 ▲치류 ▲남도 전통음식 등이다.

참가업체들은 제품 홍보와 바이어 상담회를 통해 광주 농식품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기회를 얻게 된다.

유인 기자

## 추석 건강 식재료 '가루쌀 부침·튀김가루' 최대 50% 할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월 1일까지 이마트·노브랜드 등 진행

추석 명절 건강한 음식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4일부터 10월 1일까지 '가루쌀로 만든 부침가루·튀김가루'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루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로서의 활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통해 개발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 하나로마트 양재점과 전국 이마트·노브랜드를 찾으면 가루쌀로 만든 부침·튀김가루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먼저 4일부터 17일까지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바삭한 쌀 부침가루(농협식품), 바삭한 쌀 튀김가루(농협식품), 2종을 20% 할인 판매한다. 주말인 5일부터 7일, 12일부터 14일에는 시식 행사와 더불어 '1+1 특별 할인'도 제공한다. 이어 18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전국 이마트와 노브랜드 470여개 지점에서 배대감 우리 국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4일부터 10월 1일까지 '가루쌀로 만든 부침가루·튀김가루'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aT제공

100% 우리쌀 부침가루(에버헬스케어)를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 기간 판매하는 제품은 가루쌀을 활용해 바삭한

식감을 자랑하며, 밀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국산 양파, 마늘 등을 사용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신영길 기자

## 전남도, 해외상설판매장 활용 전복 수출로 가격 안정화

미국에서는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로스앤젤레스 한남체인 플라즈마에서 판촉 행사가 마쳤다. 행사에서는 '냉동 활전복', 손질과 조리가 간편한 '자숙전복', '전복김치볶음밥', '전복해물볶음밥', '전복미역국'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됐다.

현지 소비자들은 전복의 식감과 품미, 조리 편의성 등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빈에 있는 전남 해외상설판매장에서 오는 10월 중 현지인을 대상으로 냉동 활전복 판촉 행사가 예정됐다.

임채일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